

칼럼



김 윤 호

논설위원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고 행복할까

코로나19로 전에는 상상도 못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생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인류위 과학 기술이 토기가 산다는 달나라를 정복하고 화성 목성을 탐험 연구하고 있는 놀라운 고도기술정보화 시대이다.

문제는 토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항생제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19도 살아남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변종 변형을 하기 때문이다. 과학도 진보하고, 질병도 진보한다.

그러나 결국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인간의 과학기술이 승리할 것은 자명하다.

승리를 선언하기 까지도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다는 것이 피할 수 없

는 비극이다.

국가 방역체계의 좀더 촘촘한 보완 추진과 국민들의 방역수칙의 좀더 자발적인 협력이 더욱 완벽해 진다면 인명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이든, 코로나에 관계없이 복잡하고 고단한 삶을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좀더 성공적으로 이끌어

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어떠한 마음 자세, 어떠한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인생관을 가져야 할까. 이러한 철학과 비전을 가져야 할까. 이러한 인생론은 인류가 탄생한 이래 수천년 동안 시대와 장소, 민족과 환경에 따라서 의미도 다르고 범위도 다

르고 기준도 달랐다.

그러나 복잡다기한 다양성 속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단편적으로나마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언제 자서전을 쓰게 된다면 좀더 자세한 생각을 피력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현대인의 성공과 행복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때(時)의 고급(古今)과 바다(양, 洋)의 동서(東西)를 불문하고 타당한 교훈들이기도 하다.

첫째, 사람은 부지런해야 한다. 근면은 부족함을 능히 보완해 준다. 근능보충(勤能補拙)은 성공과 행

복으로 가는 첫 번째 조건이다.

게을러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가 없다.

누구라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지런해야 인정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

둘째, 정직해야 한다. 거짓은 순간적으로는 달콤하지만 곧 들통이 나고 그 결과는 쓰다.

거짓으로 무슨 일을 이룰려고 한다면 모래로 밥을 지을려고 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옛 성현들은 누구도 가르치고 있다.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하면 뻔뻔하다고 하기도 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고도 한다.

셋째, 남을 배려해야 한다. 인생 도처(到處)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서

고 있다.

같은 그럴듯하게 꾸미고 다니지만, 속은 편협되고 배타적이고 고집이 세다. 나는 이런 사람을 골목대장 소인배(小人輩)라고 부른다.

남도 나와 똑 같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으시대고 다니는 소인배들이 많다.

반대로 남의 호의와 관용, 배려를 역이용하여 잘 되고 출세하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수도룩하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다가올 수천년 미래 시대에도 이 풍진세상에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길을 가르친 분은 단군 할아버지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을 나라를 여는 개국(開國) 이념으로 선포하신 것이다. 참으로 감동이 절로 나오는 지혜로운 진리의 말씀이다.

넷째, 마음과 몸을 낮추는 겸손이다. 교만은 자심을 망치고 일을 그릇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다. 자기 자신이 어디가, 어떻게 부족한 지를 모르고, 또한 알려고 노력이나 성

찰도 하지 않는다.

뜻은 높게 몸은 낮게 라는 말도 있다.

무엇이나 같고 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무디어지고 잊혀지고 나빠지기 쉽다.

우리의 마음도 늘 살피고 성찰하기 않으면 나태와 거짓, 이기심과 교만이 끼어들어서 녹슬기 쉽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세 번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라(일일삼성, 一日三省)고 성현은 가르침을 남겼다.

다섯째, 배풀어라. 남에게 먼저 주는 삶은 행복하다.

배푸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사랑, 불교에서는 자비(慈悲) 또는 보시(布施), 유교에서는 인(仁) 또는 덕(德)이라고 부른다.

사랑이나 자비, 인이나 덕은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남에게 배풀다고 하면 사람들은 재물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이나 따뜻한 미소 하 나도 소중한 사랑이다.

부족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늘 자신을 성찰하고 근면(계엄)과 정직(거짓), 배려(이기심)와 겸손(교만), 배푸는(인색) 삶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 미 선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학교’와 ‘폭력’ 두단어 어울리나요?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와 폭력이라는 말을 따로 나누어 생각해보고 어울리는지 생각해본다면 쓸쓸한 우리의 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어린이와는 다르게 주체적으로 무

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른 약간의 책임을 져야한다.

부모님보다는 친구들과의 시간이 많아지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학교에서의 시간이 늘어난다.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마음을 터놓는 친구를 만나게 되기도 하지만 마음을 다치게 하는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이지만 아직 미완의 청소년들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이기에 우리 사회는 그러한 문제들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해놓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들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하던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117로 통합(12.6월)하고 경찰

청·교육부·여가부가 공동으로 운영해 다양하게 접수되는 청소년 문제들을 사안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117신고통을 통해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피해를 당하고도 말하지 못한 아이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규제하기에 앞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한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일상이 되고 있는 요즘이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관심만큼은 ‘가까이두기’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부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용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